

연예종합



1 2009년 4월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앙드레 김 아트트리'에서 인터뷰 중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앙드레 김.

2 앙드레 김이 2009년 11월6일 제46회 대중상 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밟으며 관객들과 악수하고 있다.

3 도자기 브랜드 사업 등 여러방면으로 활동한 앙드레 김. 2009년 12월23일 성탄절을 앞두고 도자기 신제품을 선보인 앙드레 김과 한국도자기 직원들.

4 앙드레 김이 2009년 3월7일 태국에서 열린 한·태 수교 50주년 기념 앙드레 김 패션 컬렉션에서 태국 왕세자 비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앙드레 김 '순백의 삶' 살다 하늘로...

향년 75세...대장암·폐렴 악화 별세
한국 패션계 거목...해외활동도 왕성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한국 패션계의 거목' 디자이너 앙드레 김(본명 김봉남)이 12일 오후 별세했다. 그동안 대장암으로 투병해온 앙드레 김은 이날 오후 7시25분께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대장암과 이로 인한 폐

렴 합병증세가 악화해 타계했다. 향년 75세. 이날 앙드레 김의 아들 중도 씨는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에서 "아버지가 2005년 5월 대장암 수술과 담석 치료를 받았다. 이후 항암치료를 받아왔고 7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그의 투병 사실은 스포츠동아 단독 보도(7월 22일자)로 세상에 알려졌고, 소식을 접한 패션계와 연예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패우를 기원했다. 스포츠동아의 취재 당시 가족과 측근들은 그가 노령임을 감안해 투병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생전의 그와 함께 많은 작업을 했던 절친한 연예계 관계자들 역시 그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물음에 평소 일에 대한 정열적인 모습 등에 비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앙드레 김은 이 같은 주변과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끝내 세상과 이별하고 말았다. 앙드레 김은 그동안 한국 패션계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노년에 들어서도 젊은 후배들 못지않은 정열로 무대를 꾸며왔다. 최근까지도 국내외를 무대로 의욕적인 대

규모 패션쇼를 잇따라 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다. 앙드레 김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연 친선 패션쇼 '프리티 인 차이나 2010' 등 해외 무대에도 열정을 드러내며 활발하게 일해왔다. 또 한국 패션계를 이끌며 주한 외교사절과도 친분을 쌓으며 한국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앙드레 김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16일 오전 6시다. 장지는 충남 천안시 천안공원묘원으로 정해졌다.

앙드레 김 프로필

출생 1935년 8월 24일
(2남3녀 중 넷째)
학력 한영고등학교

주요 경력 및 수상내역

- 1962 앙드레 김 의상실 설립
- 1981 미스유니버시티대회 지명디자이너
- 1982 이탈리아 대통령 문화공로훈장
- 1997 화관문화훈장
- 2000 프랑스정부 예술문화훈장
- 2001.02 한국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 명예친선대사 제1회 하와이국제가요제 심사위원
- 2002.03 세계평화아동축제 아동평화대사
- 200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친선대사
- 2004.09 국제백신연구소(IVI) 홍보대사
- 2005 제1회 한국복식학회상
- 2006 한국관광공사 관광명예홍보대사
- 2007 제7회 자랑스런한국인대상 패션디자인부문
- 2007.06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
- 2007.08 여수엑스포 홍보대사
- 2008.06 피스퀵 홍보대사
- 2008.07 전남강진청자문화재 홍보대사
- 2008.10 제주도 홍보대사
- 2009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어워즈 국제문화교류 공로상

별들이 사랑한 스타디자이너

■ 앙드레 김은 누구?

한국 패션계의 거장이 떠나가던 날, 어둑한 여름 밤하늘은 비를 흠뻑렸다. 흰겨운 투병의 와중에도 패션 무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드러내온 거장. 75년 세월의 흐름을 무색케 하는, 늘 우아하고 화려한 면모를 과시하며 정열의 삶을 살다 간 거장의 자취는 한국 패션계의 커다란 버팀목이었다. 12일 타계한 디자이너 앙드레 김은 1935년 8월24일 경기도 고양군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영화 속 여배우들의 모습을 보며 패션 디자인에 대한 꿈을 키웠다. 고교 졸업 후 홀로 상경, 1961년 고 최경자가 설립한 서울 명동의 국제복장학원 1기생으로 입학하며 디자인계에 본격 입문했다. 스승 최경자는 자서전에서 30명의 입학생 중 단 세 명에 불과했던 남학생 중 한 명이었던 그에 대해 "재능이 많고 감각이 뛰어났던 제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런 감각과 재능으로 앙드레 김은 1962년 서울 반도호텔에서 첫 패션쇼를 열고 한국 최초의 남성 패션 디자이너로 데뷔했다. 이후 서울 소



남녀 톱스타가 애똥한 눈빛으로 서로의 이마를 맞댄 뒤 허공을 응시하는 포즈는 앙드레 김 패션쇼 무대의 상징이 됐다. 올해 3월 중국에서 열린 패션쇼 무대 리하설에 선 앙드레 김이 모델로 나선 이수경과 정겨운(맨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공동에 '살롱 앙드레'라는 의상실을 열고 본격적인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4년 당대 최고의 연예인 스타 커플인 신성일·엄앵란 결혼식 당시 엄앵란의 드레스를 디자인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1981년에는 미스유니버시티대회 지명 디자이너로 발탁돼 한국 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한국 국가대표팀의 선수복을 디자인하며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 대표 디자이너로 우뚝 섰다. 앙드레 김은 한국 디자이너로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패션쇼 무대를 꾸민 사람이기도 했다. 1962년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쇼를 연 앙드레 김은 당시 '선경(仙境)의 마술'(르 피가로) 등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이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와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이집트 피라미드 등 국내외의 수많은 곳에서 수백여 차례 크고 작은 패션쇼를 열고 자신의 독창적인 패션을 선보였다.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이탈리아와 프랑스로부터 훈장을 받은 그는 199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앙드레 김의 날'을 선포하는 등 이름을 알렸다. 이후에는 세계평화와 동족제 아동평화대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친선대사 등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늘 앞장서며 주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앙드레 김은 스타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의 디자이너이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내로라하는 톱스타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패션의 무대로 이끌었다. 앙드레 김의 패션쇼에 오른 톱스타들로는 장동건, 김희선, 이영애, 배용준, 최지우, 송해고, 이병헌, 원빈, 차인표, 송승헌, 김태희 등 끝이 없다. 팝스타 마이클 잭슨과 배우 나스타샤 키친스키, 브룩 실즈도 그가 디자인한 의상을 입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편집 | 양혜진 기자 yhj@donga.com

최경아의 6색 건강요가

몸통스윙 연습...장타권 참 쉽조임

'노이호지'(怒而嘯之)는 '화를 내게 하여 상대방의 심사를 홀트린다'는 의미로, 골프 라운드시 동반자의 이런 행동에 아마추어 골퍼들의 심리 상태가 무너지곤 한다. 특히 칭찬인지 반정거림인지 모를 듯한 한 마디에 힘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나보다. 라운드 도중 짧은 Par5홀에서 티샷을 하려는 필자에게 골프 요가 전문가이니 프로골퍼의 스윙폼이라며 투운도 가능하겠다는 동반자의 말에 바로 OB를 낸 아픈 경험도 있었다. 정말 투운을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고 일정한 스윙리듬과 궤도를 이탈하여 평소보다도 부진했다. 게다가 친행이 밀려서 앞팀, 뒷팀 모든 갤러리들의 눈은 왜이리도 많는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연습장에서는 거리, 방향 모두 만족할만한데 왜 실전에서는 어려운 걸까? 혼자 연습할 때에는 반정대는 체방꾼이 없으므로 자신의 스윙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친한 사람들과 리 약간의 농담이 섞인 반정거림은 애교로 넘어갈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인정거림은 애교로 넘어갈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인정거림은 애교로 넘어갈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인정거림은 애교로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외모나 콤플렉스에 대한 언급은 피해야 하며 동반자가 셋업에 들어갔을 때에는 조용히 해주는 것이 예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1. 어깨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서서 골프클럽을 어깨에서 잡고 숨을 들이마시며 상체를 바로 세운다. 호흡을 내쉬며 양무릎을 붙이려고 노력하고 허벅지를 수축한다. 10초 정지 5회 반복

2. 어깨 두배로 다리를 벌리고 서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보내며 체중도 오른쪽 다리에 실어준다. 이때 가능한 상체를 바로 하고 양 무릎은 펴준다. 10초 정지 3회 반복

3. 숨을 들이마시며 원위하고 호흡을 내쉬며 골반을 왼쪽으로 보내고 체중도 왼쪽다리에 실어준다. 양무릎을 펴준다. 10초 정지 3회 반복

4. 어깨넓이의 2배로 벌리고 클럽을 잡은후 양팔을 높게 들어올린다. 상체를 앞으로 90도로 숙인 후 호흡을 내쉬며 어깨와 허리를 왼쪽으로 비틀어준다. 5초 정지 3회 반복

5.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으로 상체를 비틀어준다. 이때 허벅지를 수축하며 어깨를 최대한 비틀어준다. 5초 정지 3회 반복

※주의: 1. 유연성이 부족한 경우 4,5번 동작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도록 수련한다.

※효과: 1. 허리와 고관절의 유연성이 증대되고 몸통스윙 연습을 통해 바티먼트로 비거리가 향상된다. 2. 허벅지안쪽 근육이 강화되며 하체를 강화하여 스윙시 중심축을 바로잡아준다. 3. 허리, 팔 다이어트 및 오십견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최경아

MBC해설위원 | 국민생활체육회 자문위원
저서: 100일 요가(결코 아깝지 않은 내 몸 투자)

귀엽고 엉뚱한
구미호
반하셨나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의 이승기·신민아(왼쪽).

구미호 신민아 안방을 홀렸다

'내여구' 첫방 시청률 13% 무난

'구미호' 신민아의 매력이 안방극장에서 통했다. 11일 방송을 시작한 신민아·이승기 주연의 SBS 새 수목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극본 홍정은·홍미란·연출 부성철)가 두 자릿수 시청률로 상쾌하게 출발했다. 시청률조사기관인 TnmS 집계 결과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는 이날 전국 가구 기준 12.7%로, 시청률 40%를 넘기며 고공행진 중인 경쟁작 KBS 2TV '제빵왕 김탁구'에 맞서 선전했다. 드라마는 액션배우 지망생과 500년간 봉인됐던 구미호의 사랑을 그리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이날 방송에서 신민아는 전설 속의 무서운 구미호가 아닌 사랑스럽고 엉뚱한 구미호의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시청자들은 "신민아의 매력이 그대로 담긴 구미호"라고 칭찬하며 신민아가 만들어낸 새로운 구미호를 반겼다. 신민아의 '구미호'는 광고주도 홀려 광고 완판을 기록했다. SBS 드라마센터의 한 관계자는 "70분 짜리 드라마에 허용되는 28개의 광고가 모두 팔렸다. 첫 방송 후 반응이 좋아 완판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경쟁작 '제빵왕 김탁구'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향후 에피소드로 시청률 뒤집기에 도전하겠다"고 자신했다.

이정연 기자 jinjoy@donga.com